제49호 【루계 제2675호】

주체 1 1 0 (2021)년 1 2월

토요일 음력 11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제 8 기 제 5 차 정 치 국 회 의 진 행

조 선 로 동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 5 차 정치국 회의가 12월 1일 당 중 앙 위 원 회 본 부 청 사 에 서 진행되였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신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 였다.

회의에는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 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온 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 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 있게 추진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변화들이 일어난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각 부문들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하시였다.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언급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위 하 여 계획된 전 반 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원회의 의정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왔다.

지난 12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 치국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공 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 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더 한층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 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 는 속에서도 온 한해 당중앙 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 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 게 추진되였다고, 우리가 이 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 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 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 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자랑찬 승리의 선언을 세찬 격정과 자부심속에 받아안 으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상초유의 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 엄혹한 도전과 난관을 과감 히 뚫고헤치며 기세차게 달 려온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

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였다.

과 락관에 넘쳐 2020년대 첫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해의 진군을 개시한 시기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 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 계의 위대한 투쟁강령과 앞으 로 5년간의 투쟁방향과 방도

들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와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 회를 련이어 소집하시고 각 부문에서 올해 수행해야 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신심 투쟁과업들을 세부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

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 인 전진을 가져오며 시, 군

강화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 9월에 진행된 최고인

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 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 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 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 방으로 높여 사회주의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 을 안겨주시였다.

탁월한 령도는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올해의 년초 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총 진군에 한사람같이 펼쳐나

실천, 거창한 변혁을 안아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자립적경제발전의 운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

큼직한 일판을 벌려나갈 때 인민생활의 전초선을 지켜선 경공업부문에서도 예비와 가 능성,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

하였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열 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농촌을 로력 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 있게 도와주어 좋은 결실이

이룩되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 는 자각을 안고 5개년계획의 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해 과업수행을 위한 큼직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모 '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 에서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 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 고있을뿐 아니라 지방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져 삼지연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서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희 한하게 변모되여 세상을 경 탄케 하고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 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이 과정에 각 부문들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귀 있을것이다.

다음해에 공화국은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 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

원 수 님 께 서 는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

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

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

경 애 하 는

원 수 님 께 서 는

였다.

였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 인 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이 높다.

뜻깊은 2021년, 승리의 해 마지막달이 흐르고있는 이 시각 공화국의 각지에서 앙 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 기 위한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만시련이 앞을 가로막아 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새 승리 를 향하여 계속혁신, 현속공 격해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본사기자 류 현 철







민족사에 듣기할 기계계승기를 안아오신 불멸의 경도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래는 없다고 하시며

세계적으로 때없이 쏟아지는 무더기비와 우박, 눈사태, 가물 현상, 해일현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 이든 가리지 않고 수시로 덤벼드 는 이런 자연의 광란은 실로 인 류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행을 주 고있다

하여 지구상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를 겪 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만은 이것을 찾아볼수 없다.

물먹은 산이 통채로 무너져내 러앉은듯 육중한 바위들과 시꺼 먼 흙, 뿌리채 뽑히운 나무들이 무섭게 격랑치는 큰물과 범벅이 되여 마을을 휩쓸고 거리를 휩쓸 어도 공화국인민들은 배심든든해 있었고 큰물에 집가산을 송두리 채 잃고서도 결코 비판이나 절망 에 빠져있지 않았다.

주체101(2012)년 개천의 조양 탄광지구와 검덕지구에서의 큰물 피해, 2015년의 라선지역에서의 큰물피해, 2016년의 함북도 북 부지구에서의 큰물피해, 지난해 큰물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는 련이어 공화국인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였다.

이 모든 재해들은 너무나도 아 름찬 피해를 가져왔지만 그때마 다 큰물이 휩쓸고 간 황량한 곳 마다에 본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황홀한 마을들과 거리들이 짧 은 몇개월어간에 일떠서 사람들 을 놀래우군 했다. 이것은 세계 가 다 보고 목격한 사실들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은 2016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갱

생

관

15

H

욱

발

전

풍

부

화

矿

04

《최근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 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재 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엄청 나기때문에 복구사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지출되여야 하므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결심 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매우 짧

은것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 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 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 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 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 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수 없 는 대용단이다.》

그렇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 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 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이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였다.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 고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는 인 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온넋속에 꽉 들어차있고 춘하추동 오로지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분, 언제나 인민과 마음 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그 사랑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깡그리 돌려졌다.

하여 교전직전으로 치달았던 수년전 8월의 5일간이라고 말하 는 가장 준엄한 위기일발의 사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 가 시시각각으로 밀려들고있었던 최악의 역경상태에서 열린 당중 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피해

복구문제를 중요의정으로 토의하 고 강력한 피해복구전투련합지휘 사령부를 조직하는 놀라운 현실 이 펼쳐졌으며 자연재해로 부모 와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이 마 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시고 야 영소로 떠나는 감격적인 화폭도 펼쳐지게 되였다. 또한 재해지역 인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 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 하는 이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

이 없는 감동깊은 화폭이 이 땅

우에 수놓아질수 있었다.

어찌 그뿐인가.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에는 너 무나도 기쁘시여 점심식사도 잊 으신채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세 심하게 돌아보시던 친어버이의 모습도,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 진 살림집들을 보시면서는 황홀 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 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 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에 있겠는가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도 천지개벽된 피

진정 인민의 불행을 두고 그리 도 마음쓰며 인민을 위해 온넋 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인민의 령도자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이고 정이다.

해지역들에서 뵈올수 있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화가 복으로 되고 역 경이 순경으로 전환되는 기적적 인 승리들이 런이어 이룩될수 있

세인을 놀래우는 이 기적을 두 고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은 이 렇게 말했다.

《선과 정의, 사랑을 설교하 고 〈저승의 행복〉을 약속했을 뿐인 종교창시자들이 인류의 여 러 세대들로부터 숭상을 받아오 고있는데 하물며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현하여 자기들을 불행 에서 건져주고 지상락원에서 살 도록 해준 위대한분을 어찌 인민 들이 숭배하지 않겠는가.》

오늘 공화국의 그 어느 누구 를 만나보아도 그들은 한목소리 로 말한다.

연재해가 들이닥친다 해도 우리 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 진군이 시작된 이후 공화국인민 은 한해한해를 아직 인류가 체 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

험하지 못하였던 엄혹한 시련속 에서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들이 이 나라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이 나라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 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 이고 가장 파렴치하게 감행되였 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였 다. 거기에 련이은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 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 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 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 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 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 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 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 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 술,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의 꿈 과 리상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 조하시면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 진을 다그치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 적구호로 전인민적대진군에 커다 란 활력을 부어주고계신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화

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

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

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

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발전사업을 계획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더 빨리 진척

시켜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

이렇듯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

자들의 명석한 두뇌와 전체 인

민의 드높은 자력갱생, 간고분

투의 정신을 믿으시고 그이께서

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

선,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선을 비

롯한 수많은 로선과 정책들을

우리에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

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천만대중

이 있고 열렬한 애국심과 뛰여난

창조적재능을 지닌 과학자, 기

술자대군이 있으며 그 어떤 풍

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가 있

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시하시였다.

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 도 복으로 될것이다.》 음과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기적과 승리를 령도는 적대세력들이 발광하는

속에서도 수많은 승리들을 이루 어내게 하였다. 이민들에게 더 좋은 물질문

장과 평양자라공장, 땅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 수개발의 완전성공과 세계적으 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 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자기 식으로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 업소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 자기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 일이라는것을 실증한 지하전동 차,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속 에 자기 공장, 자기 도를 대표 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이 늘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

명을 안겨줄 천리마건재종합공

어찌 이뿐인가.

찬 현실…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먼 후날에 가 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창조 물들이 가는 곳마다에 일떠서고 있으며 세계과학계에 파문을 일 으키는 수재형의 인재들이 나날 이 늘어나는가 하면 《민들레》 학습장이 들어있는 《소나무》책 가방을 메고 아이들이 전반적

어서는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지 고있다. 바다에서는 《단풍》호 고기배들이 만선의 풍어기 펄 펄 휘날리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는 세상을 놀래우는 천지개벽, 천도개벽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 조국강산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 있다.

[2]

진정 제국주의자득의 제재봉 쇄책동이 그 아무리 전대미문의 것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과 과학기술을 번영의 보 검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공화 국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것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과학기 술의 위력으로 화를 복으로 만 들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 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기적적승 리들이 인류앞에 주는 진리는 무 엇인가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시 련과 곤난속에서 쇠소리나는 자 력갱생신념의 강자로 자라난 영 응적인민이 있으며 주체의 신념 한 공화국은 언제나 화를 복으 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 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승리 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 바로 기정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计월한 사상기론의 거장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이 전통으 로 되여오고있다.

발전하는 시대와 격변하는 현실의 요 구에 맞게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리론 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실 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고전 강국건설로선이 새겨져있다. 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공화국인민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길만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 이 살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 고귀한 철리를 깊이 심어주시였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 할 응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 론활동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 발휘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 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 해주시였다.

과학기술력에 의거한다면 능히 제힘 조해나갈수 있었다. 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려 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자체 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 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 도량, 포옹력,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동포애를 베풀어주시 여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주의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자강 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안겨주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위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억세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 틀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로 ▮해왔을 때 공화국의 해당 부 고향집과 가족친척들모두 건 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기어이 열 │문 일군들은 한생 반공으로 재한걸 보니 그동안 공화국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합 ┃ 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라고, 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워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 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 명정신이다.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 : 였다. 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력을 제일로 내세우는 자강력증시사 :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정력 번영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자주적인

올해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 여 가르쳐주시였다.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자력갱생 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좌표로 되게 면서도 계획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여 야 한다는것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일 때 그 생활력이 더 높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주체103(2014)년 2월 경애하는 제8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자력갱생이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야말로 공화국경제의 사회주의적성격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혁명 과 자립성을 견지하고 정비전략, 보 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 강전략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가자》에서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로 이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유일한 출로이라고 할수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머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라고 정식화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 민들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그이의 이 정식화에는 맨손으로 뜨 틀어쥐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락또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맞받아 뚫고헤치며 자력갱생의 강자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들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이의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 당 현명한 령도밑에 일터마다에서 자력 당한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자체의 갱생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

명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장을 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 경 🛛 🖟 고 하면서 외면하였었다.

통일을 위한 길에서

주체80(1991)년 8월 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 * 족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만나주시

상,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 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가지 민 하시였다. 그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 : 족굣돗의 통일행사를 진행하는것은 •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문제 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 의 본질과 나라가 분렬된 원인에 대하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 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굳게 마음다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 지고 또 다지였다. `<u>.</u>......

불미스러운 인생길에서 방황

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

을 걸은 전 세계평 🎬

평안북도 정주태생 인 문선명선생은 인

기인 70고개를 넘긴 문선명선 못하였다.

화련합 총재 문선명

선생의 인생행로가

이 철리를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중의 한사람이였다.

생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가 고향방문을 요청

능한 일이다.

어느날 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평화통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 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 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 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 같이하시고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날 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교시

주체71(1982)년 9월 9일 위대한 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뜻깊은 담화 자격도 상실한 목석이라고, 민족의 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창 건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수령님에 대 하여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며 혁명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하 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하시였을 때에는 《북에서 외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였다.

위대 한 수령님들께서는 의 새로운 길에 용약 뛰여들 라도 주석님께 조의를 표시하 였을 때 친히 유가족들에게 조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 태웠다.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 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을 위해서가 아니였다고, 우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고 ...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투쟁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 그들모두는 제2차 범민족대회를 성과 표조선이였지 결코 두동강이 난 조선 일군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들의 심장마다에 우리가 믿을것은 제 8 차 대 회 에 서 경 애 하 는 🚦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나라가 분 적으로 치르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 이 아니였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한몸 다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 불

분렬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면 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참다운 애국의 진리를 새겨주는

절세위인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사람이 자기의 신조를 바꾼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와 민 앞으로는 반공을 하지 않고 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경애하는 워수님께서는

전을 보내주시고 위로

│ 의 말씀을 하시였으며

길에

바꾼다는것은 진실로 위대한 와 재산의 유무 등 모든것을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수령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

사상에 감복되여 그 사상을 초월하여 안아주고 이끌어주시 탓할 대신 통일애국의 길에 살 아온 그는 위대한 랑속에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

여 문선명선생은 공화국을 방 어버이의 진정에 그는 조국통 교사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다가 생의 말엽에 참된 삶 문하는 소원을 풀게 되였다. 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인생 면 압록강을 헤염쳐 건너가서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 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믿음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 온 그에게 죽어서도 빛나는

-전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

생초엽에 망국의 설음안고 현 문선명선생의 고향방문에 아무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한 인사를 평 게 하도록 하며 정부와 관계기

전쟁시기에는 남조선으로 나가 도 띄워주시고 일군들이 비행 아가면서 《장군님의 은혜에 자칭 《통일교》의 교주가 되 장에 나가 동포애의 정으로 따 이루 다 감사할 길이 없는것 여 《반공》을 웨치던 사람들 뜻이 맞이하도록 해주시였다. 공화국을 방문하는 기간 고 의를 표할뿐》이라고 자기의 마 동차》 대표리사, 주동문 《워

런북에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 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떠나기

더우기 한생 지켜온 사상을 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 진정으로 말씀올렸다.

하기에 문선명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신 자리에서 간의 공화국방문으로 오래동 살아온 그를 받아들일수 없다 🔒 비난한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지지찬동하였으며 북남 📕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민

을 안타깝게 여기며 심심한 사 기의 아들과 박상권 《평화자 주시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그가 《반공》으로부터 련공 향방문으로부터 금강산유람까 음속심중을 토로하였으며 조국 데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 전에는 친히 만나주시여 기념활 도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 깨끗한 의리심을 보여주었다. 죽대단합사상과 한없이 넓은 영과 오찬까지 함께 하시며 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 은정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과 온 7천만민족이 하나가 되여 1991년 11월말 인생의 황혼 넓은 도량에 그는 감동을 금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사》 하 고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이렇게 문선명선생은 단 7일 안 주장하던 반공을 부정하고

해탄도 건넜고 지난 조국해방 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비행기 그는 고향방문을 마치고 돌 양으로 보냈고 위대한 장군님 관일군들이 세계평화쎈터를 찾 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와 민 이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는 가 족이 비분에 잠겼을 때에도 자 _ 슴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펼쳐 시톤 타임스**》** 회장 등 3명을 방문후부터는 기도를 드릴 때 직접 보내여 조문하도록 하는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평 양에서 추모행사를 크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는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에 게 추모의 말씀도 보내시였다. 자그마한 민족적량심을 가

진 사람이라면 어지러운 과거 도 백지화해주시고 통일애국에 살도록 이끌어주시며 민족사 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을 누 리도록 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문선명선 생만이 아닌 수많은 통일인사 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 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생의 흔적은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四多9号对别多至美观之10里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4)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천명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 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 기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느라면 마 음은 저절로 9년전 봄날의 김일성광장에로 달려간다.

잊지 못할 그 봄날에 온 가슴마다에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피줄임을 깊이깊이 새겨주시 던 경애하는 그이의 음성이 오늘도 울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 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 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 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 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 다. …

이것은 단순히 연설문에 씌 여진 글이 아니였다. 온 민족 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 해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에 도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자,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받들어 이 땅 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 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보시며 또 한자 써나가신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의 열렬한 토로 였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적단합을 기 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위인 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였고 드놀지 않는 의지의 선언이

온 민족이 단합을 이룩할 데 대한 그이의 열렬한 호소 는 해마다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에도 어리여있다.

주체102(2013)년 1월 1일-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 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 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 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 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 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 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주체103(2014)년 1월 1일-우리는 민족을 중시하 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 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 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 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1일-《조국해방 일흔돐이 되 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 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 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 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 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 김정은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

익에 맞게 순조롭게

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주체105(2016)년 1월 1일-우리는 북남대화와 관 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 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 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 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 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

주체106(2017)년 1월 1일-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 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 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 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 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주체107(2018)년 1월 1일-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 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 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 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 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1월 1일-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 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 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 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 을수 없을것이다.

마디마디 뜨거운 민족애와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경륜이 넘쳐흐르는 신년사들, 그 뜨 거운 진정과 확고부동한 민족 단합의지는 우리 겨레의 가슴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으며 온 한해 통일애국의 기치가 되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 이며 통일강국이라고 선언하 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그이이시 야말로 진정한 민족의 령수,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심을 다 시한번 확신하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한 없 이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위인이 시대를 낳고 위인을 따라 력사는 전진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 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 는 없다고 하시며 지난 10년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 력사의 순간순간을 마련 하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바치신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에 의해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놓여있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고조되였던가.

오늘도 온 겨레는 민족사적 사변을 안아오시려 대결과 분 렬의 상징인 판문점의 분리선 을 성큼 넘어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잊지 못하고있다.

민족우에 그 어떤 사상도,

주의주장도, 리해관계도 놓일 수 없으며 민족을 위한 사랑보 다 더 큰것이 없다는것을 좌 우명으로 새기고계시는 민족의 어버이의 그토록 넓은 도량과 포옹력이 있었기에 한해동안

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였고 민족공동의 선언

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

선언이 채택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새겨진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나라일이 그처럼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 측예술단의 공연도 무랍없이 보아주시고 공연이 끝난 후 에는 주요배우들을 만나시여 일일이 악수도 나누시며 남 측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 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 이뿐인가.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 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품에 안아 사랑을 주고 값 높은 삶으로 빛내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경모하여마지 않던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왔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으며 대국상의 그 뼈저리고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들일행의 체류에 사소한 불 편도 있을세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삼가 조의문을 올렸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 업가의 고결한 마음을 헤아리 시여 사의의 말씀을 보내시였 으며 자자구구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감사편지를 보내시였다.

언제인가는 세계평화련합 총 재 문선명선생의 서거와 관련 하여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 그 소식 에 접한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 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고계시는분이시라고 했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 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옹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 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다.

진정 그가 통일애국의 마음 을 간직한 민족의 한 성원이라 면 누구나 손잡고 함께 통일 의 길을 가시는 그이의 위인적 인 의리의 세계는 끝이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도량과 포옹력에 감탄한 남조선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앞 길에 대통운이 텄다.》 《김정은원수님의 도량과 애국애족의 뜻은 하늘보다 높다.》, 《통일을 눈앞에 보 는것만 같다.》는 칭송의 목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 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 도 외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 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 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 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 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대단결 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 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 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본사기자 유금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하여》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담화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반 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힌 불멸의 지침, 전투적기치이다.

대 위 수령님께서는 로작 에서 조선의 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 ● 문제라고 하시면 서 민족의 내부문 **존** 제를 자체로 해결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외세의 존이 민족의 존엄 과 리익을 해치는 반민족적행위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수 있다.

우리 나라를 둘 로 갈라놓은것도 외세이고 우리 나 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 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의 간섭밑 에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 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념 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

외세의존은 민족의 수치!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 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은 오늘도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로작에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려면 **속** 북과 남이 자기의 사 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 야 하며 서로 상대방

._ o'''장 을 적대시하는 정책 을 쓰지 말아야 한다 결 고 하시였다. 이 가르치심에는 동 족에 대한 적대시정책 🖵 이 민족적대단결을

▶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는 뜻이 담겨있다. 46 민족의 대단결은 조

국통일의 결정적담보 마 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

는 사상과 제도의 차 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 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 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는것 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 는것이나 같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 은 곧 동족대결정책이고 반 통일정책이라는것을 새겨주 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로작에서 지금 북 🕝 과 남이 각각 자위를 **文** 주장하고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 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진 힘을 합쳐 외래침략 으 미리 을 반대하기 위한 자 **八** 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가르치심에는 동 족을 반대하기 위한 **자** 《자위》는 결코 자 위가 아니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 【 북과 남은 함께 손 출 잡고 민족의 무궁한 **기** 번영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동족이다. 만일 북과 남이 서로 싸운다면 그로 인해 피해

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밖

에 없다. 동족을 《적》으로 삼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 이나 무장장비개발, 외세 와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 연습들은 《자위》의 허울 밑에 감행되는 침략행위인 것이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 은 오늘도 겨레에게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은 어디에 있 는가를 깨우쳐주고있다.

박 명 성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 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 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 남조 선당국자들은 공화국에 대 한 《핵의혹》과 《미싸일위 협》소동을 일으키면서 전쟁 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 고 획책하였으며 フ로 말미 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 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 국은 시종일관 견지해온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 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 쟁을 벌려나갔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련합회의에 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

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 할데 대하여》가 상정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반도 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군축 제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국통일5개방침이 온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 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인하 고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련합회의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 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 할데 대하여》(조선반도의 평 화를 위한 군축제안)를 검토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새로운 군축제안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 화방안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한것으로서 북남 신뢰조성, 북남무력축감, 외 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개 부 문으로 되여있다. 북남신뢰조성에는 군사훈 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 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등

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여있다. 북남무력축감에는 북과 남 의 무력을 3~4년안에 3단계 로 10만명아래 수준으로 각 각 낮출데 대한 문제, 군축 정형을 호상 통보하고 검증 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반 영되여있다.

외국무력철수에서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 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

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력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 여있다

군축과 그 이후 평화보장에 는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 시군을 배치할데 대한 문제,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 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 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북과 남이 협상을 통 하여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제안은 긴장완화와 평화 문제를 가능한 한 민족내부 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주 체적립장에서 출발한 방안이

공화국의 새로운 군축제안 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물론 《민정당》(당시) 전 《국회》 특별위원장도 공화국 의 군축제안에 대해 《긍정 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 토하고 군축회담도 조속히 열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1990년 6월 4일에 진행된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는 조국통일5개방침 과 군축제안 등 공화국정부 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제안 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 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남조선당국 자들이 지체없이 군축을 실 현하는 길로 나와야 하며 미 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 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 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북과 남을 차단하는 물리적장벽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것 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정부가 제시 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 로운 제안들은 조선반도에 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며 민족의 대단결 을 이룩하고 런방제방식에 의 한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 한 온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권위있는 해외민족예술단체 로 이름뗠치고있는 총련 금 강산가극단이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강령을 따라 용 진하는 어머니조국과 투쟁의 숨결을 같이하며 올해 순회 공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

금강산가극단에서는 조국 땅에 나래치는 새로운 전진 과 비약의 기상을 자신들의 예술창조활동에도 철저히 구 현해나갈 열의를 안고 년초 부터 창작창조활동을 활기있 게 벌리였다.

올해 4월 도꾜에서 대성황 리에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봄향기》는 동포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 연종목들마다에 담았다.

어준것으로 하여 동포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금강산가극단 창작가, 예

술인들은 자본주의일본땅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 는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 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꾸노조선초급학교창 립 30돐 기념공연의 주제를 《솔》(소나무)로 정하였다.

눈속에 묻혀도 푸른빛 잃 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역땅에 있어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충성으 로 따르며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 가려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 사회에 민족의 향취와 정서, 포들의 애족애국의 기상을 공 채가 그칠줄 몰랐다.

금강산가극단은 대류행전 염병확산으로 공연활동에 많 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데 따라 소편대공연활동 등도 진행하였다.

올해에 도꾜와 효고현, 가 나가와현을 비롯한 일본각지 에서 동포들의 대절찬속에 열 린 순회공연의 회수는 12개 소에서 20여차에 달한다.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 흥취나고 건드러진 장단에 맞추어 금강산가극단 예술인 들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민 족예술무대는 관중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공연때마다 무대와 객석은 환희의 열기로 하나가 되였 고 무대막이 내려도 박수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으로 조국 과 동포사회의 귀중함을 폐 부로 뜨겁게 느끼게 하는 적 복무정신이 맥동치는 공연들 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 럽고 약동하는 정서가 흘러

넘치게 하였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그 어 떤 보수와 명예도 바람이 없 이 주체조국의 공민된 존엄 극적인 예술활동, 동포멸사 과 영예를 간직하고 혁명적 인 예술활동을 벌려나가는 애국의 나팔수들의 모습은 을 주었고 동포사회에 흥그 재일동포들의 자랑, 조국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희세의 악법인 《보안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 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지난 1일 《보안법》이 조작된 날을 맞으며 《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 한 실례이다.

던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꾼 법 고랑을 채웠다. 으로 73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 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북마녀사냥》에 의해 《간첩》, ▮미동맹》과기, 남조선주둔미 입에 자갈을 물리고 탄압한 가장 악 《종북교사》 등의 루명을 쓰고 구속 ⅰ 군 철수, 《보안법》폐지 등 명높은 악법이다.》

정당한 주장이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인간, 무덤에 처박았어야 할 악법중의 악 적호름의 반대방향으로 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존엄, 지어 초 법이다. 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해온 불 법무도한 악법이다.

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독재《정권》 고 오물이다. 의 유지, 연장을 위한 피비린 살륙도 지금 남조선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로 가는 체제교체를 위한 투 구로 되여온 《보안법》이다.

이 횡행해온 광란의 력사이고 인민들 세하고있다. 의 피로 얼룩진 죄악의 자취라고 할

매도하는 동족대결의 칼날이고 남조 니겠는가. 선인민들의 통일념원을 《리적》으로

얼마전 남조선의 진보적인 지시키고 북남공동선언리행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여러 단체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발을

맞추어 반미투쟁열기를 고조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

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준

비할 조직, 언제나 민족문제

에 관심을 두는 상설조직,

과감하고 참신한 활동을 벌

리는 실천조직을 내와야 한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남

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저

다고 주장하였다.

락인하여 탄압말살하는 히스테리적인

그 대결악법은 《인민혁명당사』 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한 황 당한 간첩단사건들을 날조하여 남 회》와 함께 11월 27일 서울 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대악법 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야수적으 룡산미군기지앞에서 《2021 반 로 짓밟았으며 민주, 인권을 요구 미자주대회》를 개최한 소식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했 도 《종북》, 《친북리적단체》의 쇠 스》가 보도하였다.

> 지난달말 보수《정권》의 《21세기 《대북적대정책》철회, 《한 되였던 피해자들의 《국회》증언이 이 ▮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보안법》은 명을 다한 폐기물이고┃을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 남조선민심과 우리 겨레의 저주와 규 ! 동맹》의 사슬을 끊어야 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인권 탄에 의해 시대밖으로 밀려난 거품이 ▌다고 하였으며 민주로총 통일

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 쟁의 길, 로동자민증의 집권 남조선의 독재통치사는 《보안법》 한 정객들도 **《**보안법**》**폐지투쟁에 합 ▮을 위한 길에 섰다. 남조선은

룩진 죄악의 자쉬다고 널 구의되기 ㄹㅇ ;--- 이어 연설한 《한국신보단 인 《보안법》유지에 한사코 매여달 대》 상임대표는 미국은 남조 · ㅆ다. 《보안법》은 동족을 《주적》으로 리는자들이야말로 반역의 무리가 아<mark>를 대》 상담되고는 되기는 미스</mark> 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하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이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 명운동, 미군범죄반대, 미고 막혀 숨막히던 지난 3년동 등을 주장하며 민족자주실현

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 쟁 등 다양한 반미통일운동 자주를 지키면 운명을 스스 참가자들은 민족의 통일과

시키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을 적극 전개해온 《한미련 로 결정할수 있지만 자주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였다.

기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위인물들의 서울행각반대투 안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을 호소하였다.

을 위한 민족선언대회 및 서 북공동선언들의 리행이 가로 주는 너무 당연한것이다.》

아야 하는 노예의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절실

히 느꼈다고 그들은 토로하

그러면서 《민족자주는 생

명이다.》, 《민족자주는 통

일이다.》, 《민족자주는 살

특히 미국의 책동으로 남 중의 승리이다.》, 《민족자

버리면 남이 시키는대로 살 위한 투쟁을 적극 주도해나

길이다.》, 《민족자주는 민 개선과 조국통일에 있다고 주

전개되고있는 반미시위

남조선의 전국민중행동이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

그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들 비위원회 위원장 겸 범민련 남 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측본부 의장은 《우리 민중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겸

《보안법》은 리승만독재에 의해 세 애초에 생겨나지부터 말았어야 할 전국농민회총현맹 의장은 지 ▮ 금 남조선은 미국중심의 국제 ■ 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권》 ▋ 위원장은 《우리는 권력교체 ▮ 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의 길 ▋ 더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

구시대의 골동이고 독재의 부스럼 아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지 않으며 전 민중이 들고일 정 필 ┛ 이나야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

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것 은 우리 민중이 각성하고 단 결하고 투쟁에 나서는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이것을 막고있 는 《보안법》부터 페지하여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 살길과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은 오로지 반미자주이다. 남북 관계도 조국통일도 (자주)없 이는 한걸음도 진전할수 없다. 오늘 〈2021 반미자주대회〉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쉬 임없이 반미자주투쟁을 벌려나

가자.》고 호소했다고 한다.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룡산미군기지일대를 행진하 며 구호제창과 다양한 공연 들을 전개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언론은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 본부의 주최로 《이제, 미국 한테 벗어나자!》 는 주제의 집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하 였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년말 년초에도 남조선미국합동군 사연습을 계속하겠다는 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분노하면서 더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것 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주통일운동과 함께

초불시민들이 념원하는 사회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하

여 적폐세력이 설자리를 철

저히 없애고 통일, 공존, 상

생. 평화, 번영이라는 새시

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특히 매주 초불시민단체들

과 련합하여 화요행동, 다양

한 반미투쟁,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업, 통일대행진단운영

등 반미통일투쟁을 더욱 공

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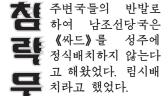
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

장하였다.

고 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인민들과

5월부터 매주 2차 이상 《싸드》기지 이로의 물자반입을 기계기 **걸** 정례화하고있는것은 성주기지의 확장과 《싸드》의 정식배치 **7** 를 추구하는것이라 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날

이 갈수록 더욱 무 모해지고 무분별해지 Ⴀ 는 남조선당국의 첨 단무기구매와 개발, ┎외세와 야합한 전쟁 연습은 가뜩이나 정 세가 긴장한 조선반

도에 전쟁불구름으 로 밀려들고있다. 외세에 대한 맹목 ■ 적인 추종과 눈치보 ☑ 기로 하여 남조선인 민들로부터 비난과 규

탄을 받으면서도 《싸 드》에 매달리는 망동 의 기저에는 바로 친 미사대와 동족대결이 미사대와 농속대결이 꿈틀거리고있다.

난조선을 미국의 미싸일전초기지, 북 침전쟁기지로 더욱 전락시키 려는 흉심의 발로라고밖에 본사기자 달리 볼수 없기때문이다.

《싸드》기지의 정식배치가 시사하는 또 한가지는 남조 선이 조선반도주변국들의 타 매의 대상, 보복의 조준경에 들게 되였다는것이다.

사거리가 종전의 《싸드》

보다 3배정도 긴 미국의 하지만 올해 남조 《확장형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된다면 조선반도주변국 여 더욱 강경해지는 미국의

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행을 위한 사슬에 남조선을 꿰여 놓으려 하고있다.

그를 위해 《동맹》강화를 커스》, 《쿼드》와 같은 침 거기에 남조선을 끌어들이려 로 된다. 고 다방면적으로, 지속적으 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절규만이 아닌것이다. 은 세계의 정치추이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미국의 아시 운 《랭전》의 서막이 열릴것 _ 엇을 위해서인가.

20세기 유럽에 전개되였던 동서랭전이 21세기에 조선반 도와 그 주변을 무대로 본 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미국의 손아래《동맹》인 남조선도 막대한 군비경쟁에 휘말려들 게 되고 《방위비분담금》증 액, 첨단무기구매를 비롯하

《싸드》배치강행은 미국의 더우기 지금 미국은 저들 대조선침략정책, 아시아태평 지역미싸일방어망구축을 위 한 서막이라고도 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거기에 맹종 요란스레 떠드는 한편 《오 맹동하는것은 호박 쓰고 돼 지우리에 들어가는것보다 더 략적인 기구들을 조작하고 욱 비참한 자멸적인 망동으

> 《〈싸드〉 가고 평화 오 라》, 이것은 성주인민들의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 에게 아무러한 도움도 되지 아태평양전략이 추구하는 목 않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에 적과 목표를 보아도 조선반 방해만 되는 그런 망동을 강 도와 그 주변에서부터 새로 행하는것이 과연 누구를, 무



합훈련중단과 남북관계개선

확대개편하여 자주민주평화

통일민족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참가자들은 현 당국의 대

미굴종정책을 비난하면서 민

족자주를 실현할데 대하여

고 발언하였다.

강조하였다.

을 위한 민족추진위원회》를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 가 전한데 의하면 11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진해 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대 회》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

이 분렬과 전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통일

밖에 없으며 악성전염병사태

와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

는 유일한 방도도 남북관계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 상남도운동본부가 주최한 대 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균부대 철거와 《한미동맹》해체, 평 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하 였다고 한다.

집회에 이어 그들은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앞까지 거리 행진을 하였으며 부대정문앞 에서는 종이비행기에 구호를 적어 날렸다고 한다.

이날 집회에는 경상남도진 보련합 대표, 6.15공동선언실 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 임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가 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는 사자와 히에나에 대한 이 일정으로 지방에 가면서 당 탈당소리까지 나오니 말입 야기를 아실겁니다.

수림의 왕이 되고싶어 히 에나들의 우두머리가 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밥에 도토리취급하는것같습 어리석은 사자가 등장하는 니다. 이야기.

지는듯 합니다.

손바닥에 《왕》 자를 새기 고 권력탈취에 나선 유석열 은 《사자》라고 해둘가요.

그의 심신호위 무사로 나선 《국 민의힘》의 어중 이떠중이들은 이 미 《히에나》로

명명된것은 분명하고. 그들의 《반란》은 내부에 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윤석열의 무시, 무시 또 무시… 권력 쟁탈을 위해 당권쟁탈이 먼 저인것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 리준 석에 대한 무시가 벌써 몇번 째인지 모릅니다.

리준석이 없을 때를 딱 골 라 입당하지 않나, 리준석 이 조직한 모임에 공개적으 내 할바만 한다 이러면서 로 빠지다 못해 《왜 오라 가라 하느냐.》고 불평을 부 리지 않나,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였다고 아예 대놓 정설이라는 말이 돌만도 합 고 무시합니다.

당대표가 반대하는 인물 들만 골라서 자기의 선거대 되였습니다. 책위원회에 받아들인다, 청

대표에게 알리지조차 않는 다. …무시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 닭 보듯 하며 개

무리에 우두머리는 하나여 였습니다. 남조선의 《국민의힘》내 야 한다는 동물세계의 약육 부에서 그 비슷한 일이 벌어 강식, 생존법칙이 철저히 작 용합니다.

> 원래 권력이라는 비게덩어 리를 놓고서는 부모처자와도 나누지 않는것들이니 응당

하다고 해야 할것이지만.

초선의원들과 밤새껏 화술

인지 위안술인지 퍼마시다가

《그럼 여기까지》라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리고는 《잠

퍼먹은 된장독이 작아서

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미욱

스레 노는 꼴을 보면 리준석

그러거나말거나 윤석열은

당대표는 안중에도 두지 않

리준석이 참 가련하게는

당대표에 대한 무시, 무 니다.

고 제볼장보러 다닙니다.

니다.

며 앵돌아졌습니다.

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럴만도 합니다.

 $\langle \langle I_1 \rangle \rangle \langle I_2 \rangle \langle I_3 \rangle \langle I_4 \rangle \langle I_5 \rangle$

그러자 리준석이 팔딱거리 가요.

어느 한 외국만화에 나오 년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 시 또 무시에 이어 퇴진, 니다.

> 리준석이 윤석열에게 몇번 이고 만화에서처럼 《메돼

그럴수밖에요. 히에나무리에 메돼지와 내봐서 잘 알겁니다.

망구스가 있을 자리가 있 나요.

먹히우고말텐데. 그쯤하면 윤석열이 당권 《국민의힘》 것들이 이제는

쯤은 건사했다고 보아야 할

하게 된데는 민심의 지지보

그래 현 《정권》의 실점

만 여론화하면서 《정권교

체》라는 랑설로 남조선민

심을 홀리고는 《정통성》을

곧잘 떠들던것들같지 않게

까지 내세웠던것입니다.

정치무식자인 검찰나부랭이

이라는 설도 나옵니다.

는지는 잘 알겁니다.

물론 파리뗴가 꿀을 빨아 먹는다고 해서 축나지는 않 습니다. 더러워질뿐.

하지만 《국민의힘》이라 고 말해봤자 소귀에 경읽기 러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의 보수《정권》을 지

사회의 모든것이 아예 풍

지박산났으니까요. 그런 조상들의 후예답게

《파리뗴》 정도 가 아니라 《히에 《6/0//L/》 를 나》 무리가 되여 날뛰고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생둥이, 《1일1망언》 자, 허풍쟁이같은자를 《사 윤석열이 이렇게 기고만장 자》로 내세우고.

외국만화에서처럼 말입 다 옆의 《히에나》들 덕분 니다.

만화의 히에나들에게 필 권력이라는 《꿀통》에 매 요한것은 수림의 실제적제왕 달려 부패해온것들이 권력 이 되는것이지 어리석은 사 을 못잡아 얼마나 안달아하 자를 왕으로 섬기자는것이 아니였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은 오직 권력을 향해 돌진 합니다. 만화를 보면 종당에 어리 석은 사자는 히에나들의 먹 이감이 되고말던데 윤석열 그러니 《리준석패싱》이 를 《보수의 구심점》이라 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려

> 끌어들이고 《대선》후보로 는지. 현 남조선정국이 연출하 그럴 때보면 리준석의 말 는 또 하나의 정치만화감입 대로 《파리뗴》가 분명합 니다.

본사기자 김정혁 : 략을 래년말까지 개정하겠다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해에 에 의해 지탱해왔으며 대부분 의 원료와 자재, 에네르기 등

는 《파리뗴》가 권력이라 : 는 《국가채무》가 9 000억 지, 망구스와 함께 하라.》 는 《꿀통》을 차지하면 더 : US\$를 넘어설것이라는 내외의 분석자료들이 쏟아져나오면 남조선경제의 기형적인 구조 · 서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배 척기운이 높아지고있다. 남조 선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도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품,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 와 《COVID-19》 사태로 인 는 구조로 되여있기때문에 한 급속한 경제위기심화, 이 해외의존도가 70%를 넘어선 를 모면하기 위한 막대한 자 다고 한다.

금지출 등으로 분석하고있다. 하청경제로서의 불공정하고 생한 뇨소수문제만으로도 충 불합리한 구조적모순으로 보아 : 야 할것이며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파국적실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같은 외자에 명줄을 잇고 그 주요 소재, 부분품, 장비를

일본에서 새 수상의 집권이

후 정부의 극우경향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일본의 집

권자가 취임기자회견과 림시

국회연설을 비롯하여 여러 계

기들에 직접 《북의 핵, 미싸

일위협》을 거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떠든데 대

벌어지는 일을 자국정치에 활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일본

장기적인 외교, 안보정책 기

본방침을 규정한 국가안보전

용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있다. 제조업의 경우를 놓고보아 이 수입에 의존하며 중간제

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수입구조의 불합리성으로 하지만 근본원인은 식민지 인한 경제적타격은 이번에 발 분한 설명이 된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성장 산업에서조차 자급비률이 낮 고 대외의존도가 높은것은

당, 정부차원의 토론을 시작

하였다. 이중에서 기본론의

언론은 이것은 사실상

유명기 여부》라고 전하였다. 관측하였다.

의 핵심은 적기지공격능력보

해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 면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하는 포퓰리즘(인기주의)성격 증가로 남조선은 경제적으로 이 강하다.》, 《〈내가 더 많 도 서서히 침몰할수밖에 없 은 돈을 뿌리겠다〉고 대국민 다고 평하고있다.

하고 지금 《대선》에 나선 후 내 집을 마련할수 없어 나이 보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저마 든 부모에 의지할수밖에 없 다 실현불가능한 《선심성》 공약들만 람발하는것이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 서 절망하고있다.》 등 각계 는 분석도 나왔다고 한다.

말로 재원대책이 없는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채 표하고있으면서도 실제로 터 력대로 《원조》와 차관과 대량제품생산에 기반을 두고 점에서 그야말로 실현가능성 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

보유》를 비롯한 방위력증대

를 공약한 일본유신회와 손

남조선언론들은 《적기지공

선 걸표(표구걸)행위이다.》, 《세금깎아서 표를 얻겠다고 사기를 치는것인가.》, 《청년 경제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 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 자신의 잘못도 아닌 나 라빚까지 떠안을수밖에 없어 의 비난자료들을 앞을 다투 남조선의 언론들은 《그야 어 실었다.

민생은 아랑곳없이 권력쟁탈 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가 늘어나는것에 대해 우려를 민심의 환멸은 겨울철 굴러가 는 눈덩이처럼 하염없이 불어 무니없는 공약을 하고있다는 나는 《국가채무》와 함께 날 로 커만 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광 혁

일본사회 우

-남조선언론들 일본을 규탄 -

해 보도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주변국가의 핵, 미싸일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을 선제공격할 근 거를 마련하는것은 물론 전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중, 쟁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개 하는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 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격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 격징후가 보일 때 미싸일거점 을 선제공격하는것이라고 하 면서 이것은 일본헌법이 규정 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독도령 그러면서 자민당이 이번 유권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 였다.

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한 교수는 일본정부가 남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조선의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에 반발한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 역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종 의 꼼수전략》이라고 지적하 면서 일본의 이러한 《꼼수 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안》을 비롯한 남 조선의 언론들도 독도와 관 련한 일본의 생트집은 계속 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반응은 자민당집권이 장기 화되면서 일본사회의 우경화 가 심화됐기때문이라고 평하

본사기자 주광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에서 시, 군을 비롯한 지방이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 되여가고있다.

지방건설의 휘황한

공화국에서 시, 군은 당정 책의 말단집행단위로서 농촌 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 나라의 전반적발 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 로 되고있다.

하기에 새로운 주체100년대 첫 기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며 빛나는 예지로 지방건설발전의 응대 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주체110(2021)년 1월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 인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 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 역으로 만드는것을 시, 군강 화의 총적목표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업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 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국 가에서 래년부터 시, 군들에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지방 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 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 킬데 대한 중대계획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중앙이 지방의 균형적

이며 비약적인 변혁을 위

해 구상하고있는 중대한 사

삼지연시와 함경남도 검덕지 구피해복구현장과 은화군 대 청리 등을 찾으시였을 때에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실 때에도 삼지연시건설 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시 켜 지방건설발전에서 전환적국 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도, 군들에서 건설과 설계력 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 적대책과 국가적대책을 시급 히 강구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그이께서 바쳐가

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 높아가는 탄원열기

균형적이며 비약적 인 변혁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대한 구상을 받 들고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시가 농촌을 지원 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 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성. 중

앙기관, 각 도, 시, 군 일군 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너도 나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당면한 농사일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각 도 들에서도 력량과 수단을 집 중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농사일 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성심 성의로 방조하였으며 농업근 로자들과 한집안식솔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로력적위 훈으로 수놓아갔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으로 여기고 자연재해를 입 은 지방인민들을 친혈육의 정을 다하여 사심없이 도와 주는 미풍이 활짝 꽃퍼나고 있는 공화국이다.

지난해 태풍과 큰물로 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 북리 그리고 함경남도의 여 러 지역들에서 혹심한 피

입었을 때에도 온 나 해를 라가 떨쳐나 피해지역 주 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 와주고 짧은 기간에 멋쟁 이살림집들을 일떠세워 화 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기 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 래웠다.

공화국에서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협동벌의 참되 주 인이 되여 청춘의 꿈과 리 상을 꽃피워갈 지향을 안 고 들끓는 협동벌로 탄원하 고있는것도 자랑할만한 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남포시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140여명의 청년들이 사 회주의농촌으로 달려나간데 이어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 국각지에서 농촌으로 진출하 는 청년들의 대오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 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 며 수도에로, 도시에로 찾아 때 수도시민증을 파견장 으로 바꾸어 협동벌로 진출 하는 청년들은 오직 사회주 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공 화국의 청년들뿐이다.



모든 시, 군들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천시켜나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진지 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핵심 이 되고 억센 기둥이 되고

도처에 일떠서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지방 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져 몰 라보게 변모되고있다.

특히 삼지연시가 산간문화 도시의 표준, 리상적인 본보 기지방도시로 훌륭히 전변되 여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 러일으키고있다.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된 삼지연시건설 은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 질문화생활에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 으로 되고있다.

은화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함경남북도를 비롯 한 많은 시, 군들에도 사회 주의선경마을들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농촌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각 시, 군들에서 농촌마을들을 농촌투유 문화발전을 이룩하고 자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

게 균형적으로 건설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평원군 남 동리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700여세대에 달하는 농촌 특유의 아담한 단층, 소층살 림집들과 관리위원회, 문화회 관, 탁아소 등이 즐비하게 일떠서 리의 면모가 훌륭히 변모되였다.

온 나라의 모든 시, 군들 을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 변시키는것은 지방건설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로 되고있 다. 이것은 그 어떤 공상 도, 점령 못할 고지도 아 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따라 온 나라의 모든 지방들이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 로, 행복의 별천지로 변모될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황금숙

남조선에서 《수도 권》과 대도시로 인 구가 몰리면서 청년 층류출과 고령화심 화, 인구감소, 도시 기능저하 등으로 하 여 지방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지방

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지방 소멸》위기가 심화되 고있는것은 무엇보 다 젊은층이 일자리 를 구하기 위해 《수 도권》지역으로 대대 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는 판매

소멸》위기가 심화되

액이 높은 1 000여 개의 기업들중 743개 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것으로 하 여 지방의 젊은층들 이 일자리가 많은 이 곳에 자리를 잡아야 살아갈수 있다고 하 면서 《지방탈출》에 나서고있다고 한다.

夏

1

전문가들은 청년 들이 《수도권》 지역 으로 향하는 리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취업이 절박한 지방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수도 권》지역으로 향하면서 《지 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있 다, 로인만 남은 마을들이 소 멸될 위기에 직면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의

과 의료 및 문화 환경 등 생활형편 이 렬악한것과도 관련되여있다. 교육격차가

우 큰것으로 하 여 《수도권》지 역대학 학생들의 퇴학비률은 3.2% 이지만 지방대학 은 5%를 넘어서 고있으며 취업률

도 지방대학출신들은 59% 로서 《수도권》 지역대학출신

(66%)보다 낮다고 한다. 의료환경을 놓고보아도 인 구 1 000명당 의사수는 서 울시가 3.1명이지만 충청북 도 등의 지방은 1.5명밖에 되지 않으며 집에서 종합병 원까지의 평균거리도 서울시 인 경우 2.85km인 반면에 경상남도는 31.54km에 이르 는 등 격차가 매우 심하다 고 한다.

또한 집에서 문화시설까지의 거리를 보아도 서울에 비해 지 방들에서 문화시설과의 거리 가 멀어 주민들의 문화수준 이 크게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교 육조건과 생활환경의 판이한 차이로부터 《수도권》지역으 로 주민들이 몰려들고 지방 이 소멸될 위기가 심화되고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 멸》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가운데 108곳, 3 500여 개의 읍, 면, 동가운데 1 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속에서 지방의 소멸은 곧 사회의 붕 괴를 의미한다, 사회의 주요 모순은 《수도권》과 비《수 도권》사이의 《지역분렬》이 라고 하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이고도 종 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유퇴가는 광예과를

지난 12월 3일은 국제장애 자의 날이다.

유엔이 《국제장애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장애자들 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 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 호하며 장애자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나라들 장애자들이 사회생활참 여와 보호, 도움은 고사하 고 사회의 버림과 랭대를 받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몆해전 남조선의 한 출판 물에는 장애자, 로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소금밭에 팔려가 12년동안이나 노예생 다란 파문을 일으켰었다.

국제장애자의

을 맞으며 조선장

애자예술협회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이

이날에 출연한 예

술소조원들가운데

는 《백설공주》로

불리우며 많은 사

람들의 사랑을 받

는 무용가 주수양

진행되였다.

도 있었다.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온 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남조 선사회에서 신체의 불편함을 느끼고있는 장애자들이 제대 로 생활할수 없다는것은 너 무나도 응당한것이다.

하지만 가장 우월한 장애자 보호정책이 실시되고있는 공화 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장애 자들은 그 어떤 차별도 모르 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보 아주며 국가적으로 보호해주 고있으며 생활처지의 악화로 고 우대해주기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전시 활을 한 사건이 보도되여 커 체장애자들에게 공급하였다. 1998년에 조선장애자보호련

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조 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 자체육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 복원 등 장애자관련 조직들과 기관들이 창설되여 장애자들 이 정상사람들과 꼭같은 권리 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 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

> 극 벌어지고있다. 후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은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 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몇해전 평양장애자교류단 이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 러 도시들에서 공연을 할 때 불구자들을 위한 교정기구공 였다. 공연들에서 출연자들 장이 일떠서 국가의 부담으 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 로 교정기구를 생산하여 신 도하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 피워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공연종목들에 담아 펼쳐보

시력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능란한 기악 연주솜씨, 황홀한 예술의 세 계에로 이끌어가는 우아한 춤 률동을 보고 외국인들과 해 외동포들은 어느 나라에나 장 애자들은 다 있지만 공화국의 🖁 특히 2003년에 채택되고 그 장애자들처럼 밝고 명랑한 사 는 근 질병들을 제때에 찾아내 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 | 여 치료하고있다. 김살없는 이들의 모습에서 월한 장애자보호정책이 보장 되는 조선의 현실을 보았다고 ¦

>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행복 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 공화 국의 장애자들속에는 공훈예 술가도 있고 나어린 무용배우, 전도유망한 성악가들도 있으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 과를 거둔 체육인들도 있다.

비록 장애는 있어도 불행 을 모르고 값높고 보람찬 삶 을 누러가는 장애자들은 노 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로 사랑하며 즐겨 부르 고있다.

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세 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그 것은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품 은 꿈도 희망도 활짝 꽃피워 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찬가이다.

본사기자 김 철

실증이다.》

다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내주군 한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축하

그가 무대에 출연할 때마

의 꽃다발에 묻혀 밝게 웃 는 그의 얼굴에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식솔로 사는 궁 한 춤률동을 펼치는 처녀 지와 자부심, 고마운 어머니 가 장애자라는것이 믿어지 조국의 사랑에 보답할 맹세

본사기자 김 진 혁



되 때 문 답 재중동포 리수경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의 회복치료를 위해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가 어떤

공화국에서는 장애의 발생 과 악화를 막는것을 인민들 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내 세우고 장애의 원인으로 되

이와 함께 여러가지 요인 에 의한 장애발생을 극력 방 지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문 제로 제시하고있으며 기능장 애를 없애기 위한 장애자회 복치료를 짜고들어 진행하고

지 회복치료를 전문으로 하 양치료뿐 아니라 료양소에

는 료양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져있다. 흔히 기능장애에 대한 회

복치료라고 하면 로력과 자 금이 많이 드는 치료로 알 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 에서도 기능회복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대중은 치료 받을 얶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치료 봉사기지들에서 무상으로 기 장애자들을 위한 여러가 능회복봉사를 받고있다. 료

오고가는 왕복려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또한 평양시 문수지구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수기능 회복원에서는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문수기능회복워의 치료실

들에는 다목적렌트겐, 심폐 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 파진단기, 뇌파기를 비롯한 그러나 공화국의 장애자 치료설비들이 구비되여있을 뿐 아니라 달리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각 종 운동치료기재들이 갖추 어져있다.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 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를 장애 자들이 무상으로 리용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기 능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 가 이렇듯 훌륭한 치료 및 봉사기지를 꾸려주는 나라 는 세상에 없다.》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진정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사랑으 로 장애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는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 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은 우릴 외면했다》

- 남조선장애인들의 처지 -

학대당하는 장애인들

남조선잡지 《한겨레21》은 장애인들이 항시적으로 생명 의 위협을 당하며 갖은 멸시 와 모욕, 랭대를 받고있는데 대해 이렇게 전하였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 리 비포장도로를 따라 한참 을 들어가니 외진 곳에 건물 이 하나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 어 학대하여 문제가 된 장애 인시설이였다.

정 아무개 목사가 18년동 안 운영해온 이 시설에서 장 애인인권유린이 저질러진 사 안 당한걸 생각하면 속이 실은 수용된 장애인들이 직 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를 찾아가 고발하면서 알 려졌다.

연구소활동가들이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씨는 발목

에 쇠사슬이 채워진채로 누 워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 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 하게 한다는 리유로 쇠사슬 에 석달동안 묶어뒀다는것이 였다. 최씨는 식사시간과 화

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러났다. 정신지체2급인 피해자 최 영태씨는 작은 키에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같은 장애 인인 리정석씨는 《이 사람 은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고 반항도 못한다.》며 《그동 쓰리다.》고 말했다. 리팡 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 인권팀장은 《얼마나 많 은 장애인이 학대받고있는 지 사회는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얼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남조선잡지 《주간한국》 은 화상환자들은 모습이 흉 하다는 리유로 극심한 차별 을 받으며 직장과 학교는 물 론 가정에서조차 배척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통스럽게 하는것은 무엇보다 직장문제다. 이들은 단지 보 기가 좋지 않다는 리유로 최소 한의 생계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채 벼랑끝으로 몰리고있다. 《화상을 입으면 그 순간

모든 삶이 중단됩니다. 얼굴 화상장애인들을 가장 고 이 보기 흉하다고 막로동도

시켜주지 않는게 말이 됩니 까? 사지가 멀쩡한데 굶어죽 으란 말인가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 은 김씨는 자신을 혐오스러 운 괴물로 취급하는 시선으 달라.》고 말했다.

로 인해 얼굴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입었다고 하면서 《화상장애인을 격리 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 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보아

장애인자살률 전체 자살률의 2.6배

남조선잡지 《시사져널》 은 비관과 절망속에 자살 의 길을 택하는 장애자들 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6.8명 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 하였다.

《남편은 장애인이다. 어 느 겨울 남편이 교통사고 로 사지가 마비

된 후 밤은 늘 부산스럽다. 밤 새 남편의 호 흡이 끊길가봐 30분마다 눈을 떠 남편의 숨소 리를 확인한다. 그렇게 잠을 잃 었다. 내 삶도 잃었다고 생각한 어느 여름밤 남 편의 휠체어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같이 죽 으려고 했다. 죽

싫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잡지 는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자 으로 같은 해 전체 자살률 25.6명의 2.6배에 달한다고

본사기자



《백설공주와 일 곱명의 난쟁이》, 《상모춤》, 《3인 봐》, 《목동과 처 녀》, 《미인과 야 수》… 그가 주인 Ok 공으로 출연한 작 품들중에서 특히 《백설공주와 일

季

곱명의 난쟁이》의 주인공 역형상은 수많은 사람들속 에서 절찬을 받고있다.

그러고보면 주수양은 비록 장애자이지만 무용가로서 성 공의 단상에 올랐다고 해야 할것이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률동감 각이 뛰여난 그였건만 막상 청력장애자가 되고보니 안타 까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의 부모들도 어린 딸애

의 전도를 비관하며 재능을 꽃피워줄 생각을 하지 못하 고있었다. 낳아준 부모들도 포기할수

밖에 없었던 장애자소녀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 무》, 《모르는가 고 지켜준것은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품이였다.

나라에서는 무용을 하고싶 어하는 주수양을 조선장애자 예술협회 예술소조원으로 무 대에 내세워주었다.

꿈속에서 그려보던 무용수 로서의 가슴벅찬 생활은 주 수양에게 생의 활력을 부어 주었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 지도교원의 성의있 는 방조가 있어 주수양의 무용실력은 전문가들도 탄 복하는 높은 수준에 올라 섰다.

2017년 촬영

그의 이름은 국내외에 널 리 알려져있다.

《무대가 좁다하게 화려 지 않는다. 그의 연기는 가 어려있다. 상상밖이다. 정말 훌륭하

《온갖 시 름을 다 잊 고 무대에서 화려하고 우 아한 춤률 동을 펼치는 (백설공주) 의 모습은

그대로 조선

의 현실에

대한 뚜렷한

다.》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 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

110hp뜨락또르도안

110hp 트락또르도안은 협동전야를 경쾌하게 내달리는 트락또르의 모습이 직

판적으로 안겨오게 형태학적으로 완성되여있다. 앞시창에서부터 앞으로 나

가면서 미끄러져내리는듯 한 경사를 이룬 기관부형태는 속도감이 강하게 안

뜨락또르의 기본색은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무쇠철마라는 뜻이 안겨오게

2층뻐스도안

2층뻐스도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뻐스의 앞면전체는 타원형의 시계모양이며 1층과 2층사이에 시계

뻐스의 색과 무늬는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회색과 검은색

의 무늬가 불갈기를 날리는 홰불처럼 형상되여있어 시련을 박차고 억

보

当なが





가 독특한것이다.

느낌이 안겨온다.

(1) 혈분의 자욱을

답긴~지사들

리봉창은 왜왕 히로히또를 처단하려다가 희생된 애국지 사이다.

서울에서 태여난 그는 가정 사정으로 11살에 사립문창학 교를 겨우 졸업하고 얼마동 안 룡산역의 만철견습조 견 습생으로 있었다.

1925년에 일본으로 가서 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독립운동에 참가할 뜻 가 그들이 타고 오는 마차에 을 품고 1931년에 중국 상해 에 건너갔다.

련계를 가지면서 왜왕을 처 단할 결심을 굳힌 그는 다 시 이해 11월에 수류탄 2개 를 몪에 간수한채 일본 도꾜 로 갔다.

1932년 1월 8일에 왜왕 히

어 만든 식혜는 바다와 떨

으며 우리 민족사에 기록된

소금, 무우, 생강, 파, 마늘,

고추가루 등을 넣어 발효시

킨 음식으로서 겨울철에 먹어

야 제맛을 낼수 있다고 한다.

담그었는데 함경도의 가재미

높아 명산물로 널리 알려져

가재미식혜는 12월

부터 3월초에 나는

생선으로 담그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며

조밥을 넣는것이 특

《동의보감》에서

는 가재미가 맛이 좋

고 독성분이 없기때

문에 많이 먹으면 허

약한 몸을 추세우고

있다.

징이다.

식혜는 해안지방에서 주로

식혜는 생선에 찹쌀, 좁쌀,

것은 17세기초라고 한다.

무궤도전차도만

새형의 무궤도전차도안에서 특징적인것은 앞부분의 형태

전차앞쪽 웃부분이 도드라져있어 주행시 공기의 회리저

항을 감소시킬수 있게 되여있는 동시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듯 한 느낌을 준다. 무궤도전차의 무늬는 분홍색과 흰 색, 풀색과 검은색, 흰색으로 되여있어 따뜻하고 균형잡힌

> 로히또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와 륙군관병식에 참석한 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이 를 계기로 왜왕을 격살하기

> 리봉창렬사는 예정대로 왜 왕 히로히또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가 관병식에 참가 하고 돌아올 때 도꾜 궁성 앵전문앞에서 기다리고있다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터졌으나 거리 그곳에서 《한인애국단》과 가 멀어 명중하지 못하였으 며 그는 즉석에서 체포되여 도꾜의 이찌야감옥에 투옥되

> 리봉창렬사의 의거는 내외 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원기회복에 좋은

라고 한다.

생선에 곡물을 적당히 넣 기력을 북돋아준다고 하였으

어진 산간지대들에서 생선을 므로 겨울철에 먹으면 건강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으 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또

로 절여온데로부터 시작되였 한 조는 열을 조절하므로 대

가게비시심훼

며 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

장을 리롭게 하고 당뇨병과

빈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

발효식품인 식혜는 소화

가 잘되기때문에 화자나 로

약자,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으

로 좋으며 마늘이나 고추가

루가 들어가기때문에 김치에

서 얻을수 있는 항암효과도

그가 왜왕행렬에 폭탄을 던

애국렬사 리봉창

지고 체포된 다음날인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 보》는 특호활자로 《한인 리 봉창 저격 일본천황 불행부 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 밖의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 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애 시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비낀 산업미술도안들중

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고있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 을 주었던지 현지의 일본군 대와 경찰은 《국민일보》신 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였으 며 불행이라고 낸 신문사들 은 모조리 페쇄하였다.

일제는 리봉창렬사에게 사 형언도를 내리고 1932년 10월 10일에 집행하였다.

그의 왜왕에 대한 처단미 수사건은 우리 민족의 반일 감정을 시위하고 일제침략자 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놀았다.

본사기자



대설과 동지는 24절기가 운데서 12월에 드는 절기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가 설치되여있다.

장 많이 내리는 시기를 일러 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7일이나 8일에 든다. 예로부터 대설에 눈

세계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이 잘 나타나있다.

이 많이 내리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선 조들은 추운 겨울이지 만 농기구들을 만들거 나 수리하고 거름모으 기를 진행하는 등 다음 해 농사차비를 착실하 게 하였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것을 일러 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동지날에는 한 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데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 으로 11월초순에 들면 애동 지,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 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

크고싶어하는 아이들은 애 동지를 특별히 좋아하였다 고 한다. 동지날에 해먹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푹 삶은 팥에 흰 쌀과 물을 두고 쑨 동지죽(동 지팥죽)을 들수 있다.

> 동지죽에는 수수 또 는 찹쌀가루 등을 가 지고 크기는 새알만하 고 동그랗게 빚은 새 알심(오그랑이)을 넣 군 하였는데 북쪽지방 에서는 주로 찰수수가 루를, 남쪽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리용하 였다.

> 동지죽을 쑬 때 다 른 새알심들보다 큰 새 알심을 몇개 만들어넣 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 는데 큰것이 차례지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 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 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올해에 대설은 12월 7일이 며 동지는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평천구역 미래유 치원에서 바둑소조를 통해

모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 의 싹을 찾아내고 꽃피워 주기 위해 애쓰는 이곳 유 치원교양원들의 노력이 깃 들어있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들의 성격과 심리, 소질 등 을 깊이 관찰하면서 합리적 인 교수방법들을 적용하고 새로운 교편물들을 창안제작 하여 교수교양에 적극 리용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좋 은 바둑은 이곳 유치원교양 원들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교육내용의 하나이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민속놀이이면서도 높은 급 의 지능경기종목인 바둑의 유래를 비롯한 옛이야기들 을 들려주면서 어린이들이 바둑에 취미를 가지도록 하 고있다.

金里里里里里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서-

바둑돌을 손에 쥐는 방법, 바둑판우에 돌을 놓는 방법 으로부터 바둑의 묘리와 수 읽기 등에 대하여 우리 말의

어원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어가고있다. 이 과정에 어린이들은 론 리적사고능력과 집중력은 물

을 배우고있다.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이 지 난 기간 바둑경기에서 받은

상장만 하여도 수십개에 달 한다고 한다.

이 나날 이곳 유치원교양 원들은 《유치원바둑배우기》 를 비롯한 여러권의 교재들

[6]

기자와 만난 홍정미교양원 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둑을 배워주는 과정에 유치원어린이들의 동심에 맞 는 교수방법들을 새롭게 터 론 공간적표상능력과 자제 득하였다.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귀중 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도 록 하겠다.》

본사기자 림 광 훈



수양산성은 황해남도 해주 시 학현동에 있는 고구려시 기에 돌로 쌓은 산성이다.



수양산성 남문러

아있고 남동쪽에는 무연한 연백벌이, 남쪽에는 해주만 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

이 성은 서쪽에 높이 솟 은 장대봉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봉우리들을 련결한 둘 레 5 258m의 큰 산성이다. 성벽은 지형지물을 잘 리

이 성은 원래 지성산성이

라고 불러왔고 예로부터 황

해도 3대산성의 하나로 일러

용하여 대부분 바위우에 쌓

성벽의 높이는 보통 6~7m, 밀너비 7~8m, 웃너비 3~4m이며 남문부근에서 는 성벽의 두께가 14m나 된다.

이 성은 거의 전구간을 량 면쌓기방법으로 쌓아 든든하 게 하였다.

수양산성에는 동, 서, 남, 북쪽에 각각 대문이 있었다. 수양산성에는 외래침략자 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 수양산성은 선조들의 훌륭 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며 용 감한 애국적투쟁이 깃들어있 는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 > 본사기자

겨울철에 운동할 때에 다 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철문동시

운 동 전 에 200~300ml의 끓인 물을 마시 면 피의 점성을

낮춤으로써 뇌혈전과 판상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점차 동맥질병의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 록 이에 더 주의를 돌려야 한다.

◆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간

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때문에 방안에서 천

생리적기능이 활발해지게 해

가 담갔느냐?》 하고 물었다.

주의해야

야 한다.

단한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 장기들의 기능이 활발하지 뜨기 전시간의 공기가 신선하

◆ 날씨를 고려해야 한다. 센바람이 불고 날씨가 차며 아침기상때에는 몸안의 각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해가

> 지 못하다. 이 시 간에는 운동을 하 지 않는것이 좋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공기속에

들어있는 산, 알카리 등 유해 물질과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이 쉽게 흩어지지 않으므로 천히 걸으면서 팔과 다리의 이런 날에 운동하면 기관지 염. 결막염 등에 걸릴수 있다.

본사기자

사 화

보 쌈 김

식혜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들어섰다. 양태 넓은 갓을 쓰 고 비단관복 입고 목이 긴 검 정가죽신을 신은데다가 부얼 부얼한 얼굴, 주름많은 사발 통같은 눈확 한가운데 가늘 게 치째진 표정을 짐작키 어

> 에 매달린 설핀 수염… 한데 대감이라니 대감인가부 다 할뿐 무슨 직책을 맡은 무슨 대감인지도 몰랐다. 알 아선 또 뭣하랴.

> 루추하오나 어서 방으로 드시 오이다.》 주인령감은 무작정 황송하여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맞아들였다. 《어험!》

> 대신한 후 대감은 방으로 들 어와 비단보료우에 틀지게 넌떡 앉았다. 주인령감은 문가에 무릎을

년을 들여보내야 할지… 속궁 리를 분주히 굴리는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대감의 목소리가 드르르 굴러나왔다. 《듣자니 송도일판에 소문

《네, 분부대로 하옵지 요.》

고 뒤걸음쳐 나오면서 (옳거 니, 역시 그 보쌈김치때문이 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 를 불렀다.

려간 주인령감은 고분의 잔 등을 두드려주며 《네가 담 근 보쌈김치맛을 보시려구 슬 녹으면서 어느새 혀와 함 큰 기침 한번으로 대답을 한양대궐에서 대감님이 행차 하셨구나.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니. 어서 제일 잘 익은걸 루 한보를 꺼내서 감로주에 곁들여 차려 내오너라.》 하

잠시후 술상을 받은 대감은

김 윤 일

늬보시기만 눈여겨 살피였다. 겉을 싼 파란 배추잎보를 반 쯤 벗겨놓았는데 그속에서 노 랗게 익은 배추가 통이 앉은 속모양 그대로 보였다. 꽃잎같 은 그 갈피갈피에 빨간 대추며 노란 은행이며 사과, 배, 밤을 사뿐 물고 방긋 웃으면서 어서

감빛도는 김치국물에 반쯤 잠긴채 얌전히 담겨있는 그 모양은 그저 김치가 아니라 마치 빨간 입술을 반쯤 열고 웃음짓는 미인의 모습같았다. 풍겨나오는 진한 향기에 벌

드세요 하는듯 하였다.

써 스르르 군침이 돌았다. 저가락으로 한잎을 집어 입 에 넣으니 쩡한 맛에 달고 새큰한 맛이 한데 어울려 슬 께 목젖이 넘어가려 하는것 을 가까스로 혀로 눌러잡고 어금이로 살짝 씹으니 그 사 치맛과 향기를 뛰여넘었다.

하군.) 대감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 면서 한입에 두세잎씩 집어넣 고 어석어석, 와삭와삭 씹는 체 하고는 넘기기에 급급해 하였다.

늘 마시던 감로주이건만 안 주맛이 상쾌하니 술맛도 아 주 달아져서 신선이 마신다 는 술맛이 아마 이럴것이라 는 생각이 절로 나고 암, 그

《네. 저의 집 부엌일을 하 는 고분이라는 내인이 담근 것이오이다.**》** 《고분이? 내 좀 보고싶으 니 얼른 불러오게.》

《네, 분부대로 하겠소이 다.》

또다시 부엌으로 달려간 주 인령감은 《얘야, 대감님께서 널 보시겠다누나. 옷매무시를



렇구말구 하는 대답 또한 절

바로하고 얼른 나가 뵈옵거라.》 하며 고분이를 독촉하였다.

고분이는 황황히 소매가 젖 은 허드레옷 저고리대신 그래 꿇고앉아있는 주인령감이 보 도 좀 나아보이는 베저고리 (어허, 이래서 그렇게 소 이자 《음, 김치맛이 듣던바 를 벗겨입고 대감이 든 방문 문이 났었구나! 소문날만도 대로이군. 헌데 이 김치를 누 앞 퇴마루에 나가 얼굴도 들

지 못한채 꿇어엎드리였다. 《얼굴을 들거라.》

대감의 목소리가 들리자 고분이는 얼굴을 들고 겁에 질린 눈길로 대감을 한번 쳐 다보고는 고개를 숙인채 앉 아있었다.

그 모습을 한동안 살펴보 던 대감은 (흠, 그리 곱지 도 밉지도 않아 부엌에 두 고 쓰기에는 맞춤이로구나.) 하는 속생각을 굴리고나서 《그래, 네가 이 김치를 담 그었느냐?》 하고 물었다.

《네, 담그기는 이 손으로 담그었사오나 맛은 감새가 낸 것인줄로 아오이다.》

《허허… 그 말이 또한 명담 이로다. 감새야 옛적부터 있었 지만 네가 재간껏 담그지 않았 던들 세상에 이런 김치가 생겨 날수 있었겠느냐. 그래, 김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넓은 배추잎으로 싸서 맛들인 김치라 하여 모두들 보쌈김치라 부르오이다.》

《오냐, 이름 또한 멋스럽 구나.》

대감의 깊은 주름살속에 감추어진 뱁새눈에서 한순간 의미를 짐작할수 없는 빛이 번뜩이였다. 《그만 나가보아라. 후날

류수사또를 거쳐 다시 찾거 든 어김없이 분부를 거행하 여 후회없이 하거라.》

◇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잘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마음이 맞고 성수가 나서 일을 하므 로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집안 좁은건 살아도 마음 좁은건 못산다. 집안이나 집단이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화목한 가정에는 보물도 부럽지 않다.

가정에서는 보물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어야 자기에게도 그만한 정 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정이란 주고받는것이지 일방적 일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이윽고 대문앞에 와서 가마 내라 할지, 술을 치라면 어느 보쌈김치가 담긴 청자상감무 에서 내린 대감이 마당으로 려운 뱁새눈, 군살이 오른 턱

서슬푸른 량반관리가 분명

《대감님, 행차하셨소이까?

꿇고앉아 분부하기를 기다리 면서 술을 치라 할지, 육포를

난 이 집 김치맛이 세상일미 라 하니 다른 안주는 다 그 만두고 그 김치만 맛을 보면 되겠네.》

주인령감은 굽신 절을 하

부엌으로 춤을 추듯이 달

고 수선을 떨었다.

한동안 보쌈김치맛에 넋을 박사박 씹히는 멋이 또한 김 잃고있던 대감은 앞에 무릎을